

##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홍해를 건넌 서울교회

### - 오늘 저녁 승전감사예배 -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해 보자고 특별 새벽기도회와 불기둥, 구름기둥 모임 등으로 진행하던 '94홍해작전의 행군이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 승전감사를 함으로 막을 내린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 아래 개인의 경건과 사랑과 절제의 생활, 교회의 진정한 갱신, 국가와 사회의 모든 문제들,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미래 등을 위해 일곱가지 기도제목을 정하고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며 로마서를 통해 날마다의 말씀을 받던 홍해작전 기간 동안은 각 부서별로 94년 상반기의 활동을 돌아보며 간담회 등을 통해 연초의 결심과 계획들을 되돌아 보는 기간이기도 했다. 특별히 전쟁의 소문 속에 불안과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 지난

금요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교회는 금식헌금을 난민구조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다.



'94 홍해작전의 모든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서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내일부터 새벽기도회는 종전처럼 5시 30분에 시작한다.

##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 안수집사 선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해석서 제 58조 3항에 의거한 공동의회를 오늘과 다음 주일에 열기로 하고 공동의회에 제출할 집사 명단을 이미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오늘 II부 예배 후 안수 집사 30명 선출하게 되는데 온 교회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당회는 당회장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투개표 위원은 교역자와 장로로 구성하였다.

30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이번 투표에서 1차 투표시 투표자의 2/3를 얻은 후보가 30명이 되지 못할 경우, 찬양예배 후에 2차 투표를 하기로 했다. 2차 투표시에는 잔여 수의 1.5배를 추천하여 투표하게 된다.

### 다음 주일 권사 선거

다음 주일 II부 예배 후에는 권사 30명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소집된다. 당회는 45세 이상, 70세 미만의 헌법상 규정을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하였다.

- ① 모든 후보는 헌법에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 ② 50세 이상으로 하고
  - ③ 70세 이상인 자(은퇴자)는 그 자격 기준에 해당될 경우 70세 이상인 무임권사와 함께 공동의회에 가부를 묻는 조건으로 하였다.
- 이상의 조건에 따라 추천된 후보의 명단은 3면에 게재되어 있다.



### '94 제 3차 학습, 세례식

22일 (수) 수요일 I, II부 예배시 수제

우리 교회는 오는 6월 22일 수요일 I, II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을 거행한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회망자들은 문답 신청서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20일(월) 오후 7시에 행하는 예비 교육과 21일(화) 오후 7시부터의 신앙문답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새가족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문의는 각 교구 담당 교역자나 예배위원회 지도인 임진태 목사에게 하면 된다.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새가족환영회, 6월 23일(목) 오후 7시 -

1994년 3월 13일 이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과 새가족을 인도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예배와 식사 친교 등의 순서를 통해 우리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역자와 교구 일꾼들과도 인사하면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지침을 소개 받고 새가족의 간증을 듣는 순서도 가진다. 6월 23일(목) 오후 7시 유년부실에서 한다. (주최 / 새가족부)

창세기  
강해



## 셈의 후예들

(창세기 10장 21 ~ 32절)

이종운 (목사·당회장)

노아의 세 아들의 순서는 성경이 가르친대로 셈, 함, 야벳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영적인 순서이고 연령의 순서가 아니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0장 2절에서 야벳의 후예가 제일 먼저 나오고 6절 이하에 함의 후예가, 21절에서 셈의 후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었다고 반문하실 것입니다만은 영어성경에는 ‘형제(brother)’로 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는 오히려 동생이라는 뜻의 말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왜 셈, 함, 야벳의 순서로 기록을 했을까요? 셈의 후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으니 그 후예들이 성경 역사 전체를 채우고 다윗의 후손이 되고 마침내 메시아까지 연결되어서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문화의 출발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21절)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의 아들 셀라, 그의 아들이 에벨이니가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에벨을 표기하는 글자를 보면 ‘h’가 붙는데 이를 처음에는 발음을 안하다가 후에 헤벨, 헤벨트, 헤브르, 히브르로 점차 변음되어 부르케 된 것으로 에벨은 결국 히브리인(강 건넌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브라이즘이 에벨(강 건넌편, 혹은 강을 건넌다는 뜻)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후손이 이룬 민족이 히브리인이며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벨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 1. 셈의 다섯 아들

창세기 10장에서 야벳의 후예는 2대, 함의 후예는 3대까지 설명되었는데 셈의 후예는 5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셈의 다섯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어느 족속으로 흩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① 엘람

엘람인은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16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가서 격파시킨 사람이 ‘그돌라오벨’ 즉 엘람 왕입니다. 엘람인은 본래 메소

포타미아 동쪽에 살고 있다가 후에 메데 사람들과 합쳐서 파사(페르시아)제국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 ② 앗수르

앗수르는 앗시리아인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니므롯이 앗수르를 침공했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앗수르족이 혼혈족속이 되어 종교적으로도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 ③ 아르박삭

아르박삭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24절에 그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족보를 보게 되면 삼십 오세에 셀라를 낳고 사백 삼십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④ 룻

룻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한 시대를 살았던 미디아인의 조상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이 바로 룻의 후예들입니다.

#### ⑤ 아람

아람은 수리아 사람으로 알려진 아람인의 조상입니다. 아람은 아랍과 구분해야 합니다. 아랍어와 아람어는 다른 것입니다. 아람어는 옛날 수리아 말로서 앗시리아와 바벨론 같은 고대의 강대국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퍼져나갔으며 예수님 당시의 법정언어는 라틴어였고 시장에서 쓰는 언어는 헬라어였으며 성전에서는 히브리어를,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네 아들 우스, 훌, 게델마스 중에서 첫째 아들인 우스는 후일 율의 고향이 우스 땅인 것을 보면 그들 족속이 거주하던 땅이 어디였는지에 대해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 2. 세상의 나뉘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25절).

창세기 11장 10절에서도 다시 언급되지만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땅이 나뉘었다는 것인지 히브리 종교가 다른 신앙과 분리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어 인류가 나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연구해

보면 셈의 후예는 26개 민족으로, 함은 30개, 셈은 26개, 야벳은 14개로 총 70개의 민족으로 퍼져 나가고 나중에는 더 퍼져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의 ‘민족’이라는 말은 족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은 본래 하나였는데 홍수 후에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습니다(32절 이하).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에벨의 후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이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을 삼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나아가 부활을 증거하는 중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으니 주님의 주님되심을 증거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 순례자 킬림 ◆

#### 어찌할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기를 시작했다. ‘어찌할고’라는 질문 속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크고 작은 문제를 포함한 절박한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았고 울어도 보았고 힘쓰기도 하고 참아도 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탄식하는 소리가 웅어리져 들려진 울부짖음이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문제, 질병과 사업문제, 자신의 심성과 이웃과의 문제, 도덕과 윤리문제,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면전에서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지 않는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더욱 좌절과 침륜에 빠지게 될 뿐 소망이 없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찌할고’ 자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될 것이다.

빛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 권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

| 번호 | 이름    | 출생년도 | 수세년도 | 봉사부서 및 활동                     | 가족            |
|----|-------|------|------|-------------------------------|---------------|
| 1  | 박 경 희 | 1942 | 1960 | 찬양대원, 지역장, 무임권사               | 정병무 장로와 3남 1녀 |
| 2  | 최 완   | 1926 | 1974 | 소망부 교사, 다락방장                  | 2남 2녀         |
| 3  | 우 선 자 | 1941 | 1955 | 찬양대원, 지역장, 무임권사               | 홍정호 장로와 2남 2녀 |
| 4  | 전 정 순 | 1933 | 1965 | 타이부 교사, 찬양대원, 무임권사, 에스더 5 부회장 | 정기동 집사와 3녀    |
| 5  | 김 윤 자 | 1943 | 1959 | 부지역장, 찬양대원, 에스더 2 부회장         | 정용철 집사와 2남 1녀 |
| 6  | 윤 문 자 | 1940 | 1957 | 다락방장, 찬양대원                    | 김태기 장로와 3남    |
| 7  | 이 경 희 | 1943 | 1965 | 무지개회 회원                       | 박철훈 장로와 2남 1녀 |
| 8  | 이 부 자 | 1941 | 1984 | 찬양대원, 에스더 4 회장, 타이부 교사, 헌금위원  | 2남            |
| 9  | 박 금 옥 | 1925 | 1986 | 부지역장                          | 2남 1녀         |
| 10 | 이 점 숙 | 1930 | 1983 | 사랑부 교사                        | 1남            |
| 11 | 조 향 영 | 1930 | 1960 | 무임권사                          | 1남            |
| 12 | 김 옥 남 | 1937 | 1959 | 에스더 3지회장, 다락방장, 헌금위원          | 김일용 집사와 2남 1녀 |
| 13 | 이 정 자 | 1942 | 1981 | 다락방장, 중등부 교사, 찬양대원            | 구홍황 성도와 2남    |
| 14 | 김 순 자 | 1943 | 1980 | 찬양대원, 에스더 5 회장, 다락방장          | 이기곤 집사와 2남 1녀 |
| 15 | 이 은 희 | 1943 | 1962 | 고등부 교사, 다락방장                  | 나종영 집사와 1남 1녀 |
| 16 | 김 정 수 | 1939 | 1986 | 찬양대원, 다락방장, 에스더 6 회장          | 김병상 집사와 1남 2녀 |
| 17 | 윤 갑 숙 | 1943 | 1981 | 고등부 교사                        | 김형택 집사와 2남    |
| 18 | 고 윤 화 | 1937 | 1952 | 무임권사                          | 2녀            |
| 19 | 김 경 희 | 1931 | 1969 | 다락방장, 소망부 교사                  | 2남 1녀         |
| 20 | 전 행 자 | 1940 | 1979 | 고등부 교사, 찬양대원                  | 박두영 집사와 2남    |
| 21 | 김 종 리 | 1927 | 1975 | 타이부 교사                        | 2남 1녀         |
| 22 | 정 봉 금 | 1941 | 1960 | 찬양대원, 에스더 2 회장, 권찰            | 안창희 집사와 4녀    |
| 23 | 심 재 을 | 1925 | 1965 | 소망부 교사                        | 2남            |
| 24 | 황 훈   | 1933 | 1953 | 부지역장                          | 맹선제 집사와 1남 2녀 |
| 25 | 인 찬 희 | 1935 | 1971 | 무임권사                          | 이우상 집사와 2남 1녀 |
| 26 | 허 덕 애 | 1931 | 1981 | 다락방장                          | 최상식 씨와 4남     |
| 27 | 고 후 덕 | 1934 | 1984 | 에스더 1 회원                      | 최재영 씨와 1남     |
| 28 | 김 혜 자 | 1932 | 1979 | 다락방장                          | 1남 2녀         |
| 29 | 최 인 영 | 1943 | 1954 | 찬양대원, 다락방장                    | 이영렬 장로와 2남 1녀 |
| 30 | 강 풍 자 | 1944 | 1962 | 다락방장                          | 홍정선 집사와 2남 1녀 |
| 31 | 권 영 애 | 1942 | 1982 | 소망부 교사, 다락방장, 찬양대원            | 송의웅 집사와 1남 2녀 |
| 32 | 김 인 순 | 1931 | 1949 | 다락방장, 타이부 교사                  | 2남            |
| 33 | 이 순 례 | 1937 | 1954 | 다락방장, 에스더 1 부회장               | 김상식 집사와 4남    |
| 34 | 홍 재 식 | 1942 | 1984 | 다락방장, 헌금위원                    | 윤찬오 집사와 1남    |
| 35 | 최 영 순 | 1933 | 1978 | 다락방장, 사랑부 교사                  | 서필수 성도와 2남 1녀 |
| 36 | 최 죽 희 | 1944 | 1979 | 다락방장                          | 2남 1녀         |
| 37 | 김 영 연 | 1935 | 1978 | 소망부 교사                        | 김만선 집사와 3남 2녀 |
| 38 | 박 정 원 | 1935 | 1978 | 다락방장                          | 1남 2녀         |
| 39 | 김 인 숙 | 1940 | 1980 | 교회직원                          | 2남            |
| 40 | 손 재 겹 | 1942 | 1980 | 다락방장                          | 김하중 성도와 1남 1녀 |
| 41 | 윤 영 자 | 1928 | 1989 | 권찰                            | 2남 1녀         |
| 42 | 유 영 자 | 1943 | 1989 | 찬양대원, 헌금위원, 다락방장              | 오백수 성도와 3녀    |
| 43 | 유 영 자 | 1925 | 1980 | (10교구) 찬양대원, 헌금위원, 다락방장       | 2남 5녀         |
| 44 | 이 경 숙 | 1940 | 1961 | (6교구) 권찰                      | 최기운 성도와 1남 2녀 |
| 45 | 양 옥 자 | 1940 | 1958 | 부지역장                          | 하범수 씨와 1녀     |

무임권사 중  
70세 이상 후보자

| 번호 | 이름    | 출생년도 | 수세년도 | 취임년도  | 가족            |
|----|-------|------|------|-------|---------------|
| 46 | 김 화 순 | 1914 | 1930 | 1986년 | 1남            |
| 47 | 박 청 강 | 1921 | 1971 | 1977년 | 1남 2녀         |
| 48 | 조 옥 순 | 1923 | 1941 | 1978년 | 1남 5녀         |
| 49 | 정 복 숙 | 1924 | 1979 | 1987년 | 송지홍 집사와 3남 2녀 |

70세 이상  
후보자

| 번호 | 이름    | 출생년도 | 수세년도 | 가족         |
|----|-------|------|------|------------|
| 50 | 김 정 현 | 1917 | 1981 | 1남 4녀      |
| 51 | 이 옥 순 | 1918 | 1943 | 3남 2녀      |
| 52 | 김 남 순 | 1920 | 1969 | 1녀         |
| 53 | 김 인 식 | 1921 | 1950 | 2남 2녀      |
| 54 | 최 순 애 | 1922 | 1988 | 김재원 집사와 2녀 |
| 55 | 송 갑 순 | 1923 | 1964 | 1녀         |
| 56 | 김 진 영 | 1923 | 1978 | 2남 2녀      |
| 57 | 차 복 녀 | 1924 | 1940 | 2녀         |
| 58 | 정 복 순 | 1924 | 1987 | 서귀용 집사와 2남 |



광야의  
소리

## 야당과 여당의 선택

정

치의 원리는 여·야가 근간이고 여당의 논리에 야당이 견제와 협조로 접근함으로 이루어진다. 국가 안보와 같은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으나 국내 문제는 심층팔구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대립된다. 그래서 여·야는 언제나 날카로운 대립을 통하여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여당의 논리가 앞장서고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시 정치는 여당이 주도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교회 생활에서 야당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불완전한 지상교회이므로 문제점이 있고 갱신의 요소가 구석 구석에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헌신적이고 충성된 여당적 성격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 비판과 불만과 불평과 소리지름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를 못한다. 교회는 흑백의 논리가 전개되는 곳이 아니며 여당적 성도들에 의해 성장하고 유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류역사도 여당적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지배해 왔고 앞으로도 그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

## 우유팩, 화장지와 교환

우유팩은 많은 양의 펄프가 압축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제품이며 잘 씻어서 말리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다.

마리아 제 2전도회에서는 우유팩을 수거해서 교회에서 사용할 화장지와 교환하기로 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한 우유팩을 씻어서 말린 후 접어진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 펼쳐 가지고 오면 된다. 우유팩 1Kg은 1개의 두루말이 휴지와 바꾸게 된다.

손질한 우유팩은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예배당 입구에서 모은다.

### 사랑부 교사 모집

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 사랑부에 선생님이 부족하다. 사랑부의 집회는 주일 오후 2시에 교육관 5층에서 한다. 특별히 학생들이 교회를 오가는 일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 ■ 교우 동정 ■

· 중등부 안상미 양이 지난 6월 6일 서울 강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글짓기 대회에서 물의 오염과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자연과 환경」이라는 제목의 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 오늘은 일꾼 세우는 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16:33)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잠18:18)

위 두구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공정한 것으로 여겼고 그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드렸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두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마주쳐 서로 물러서지 않을 때, 혹은 한 편이 물량적으로나 힘으로 이겼을 경우에, 자칫 분리되기 쉬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 함께 한 결과에 승복하게 한 방법이었다.

구약시대 있어서 지도자를 택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부르신 것 이외에는 일꾼을 세울 때 공동체를 통하여 세우신 것을 볼 수 있다. 사도를 충원할 때 두 사람을 세우고 제비뽑기를 한 예가 사도행전 1장 22 - 26절에 나오며,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는 “택하라”하신 명령만 나올 뿐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행 6:6 - 3).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방법론도 중요하겠으나 성경은 일꾼의 자질에 대해서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사도를 뽑을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했고 일곱 집사의 자격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뽑아야 할까? 평소의 인간관계에 치우쳐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할 일이다. 일꾼을 세우는 오늘은 이미 일꾼된 자들에게는 처음 세움을 받을 때의 각오와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교회에 일꾼될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성령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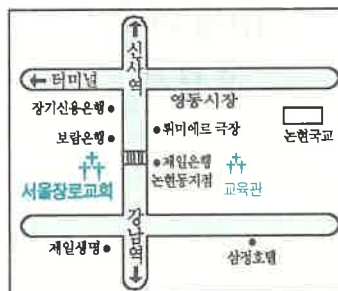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I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I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 부 오전 9시<br>II부 오전 11시<br>III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 부 오전 11시<br>II부 오후 7시               |
| 금요 기도 회 | 오후 9시                                 |
| 새벽 기도 회 | 매일 새벽 5시30분                           |

#### ■ 교회위치



## 서울주간기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소서.
2. 우리나라를 전쟁의 소문에서 지켜주시고 보다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소서.
3.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허락하소서.